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에 관한 연구

-교육기 자녀를 가진 비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Wives' Leisure Time and the Perceived Quality of Life

광주대학교 문리과대학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한 경 미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University

Instructor : Kyoung Mi Han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 황 덕 순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 : Duck Soon Hwang

目 次

I. 序

II. 理論的 背景

1. 여가의 의미와 기능
2. 주부 여가시간의 배분경향과
관련요인
3. 생활의 질 인식과 관련요인
4.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조사도구의 구성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3. 자료의 분석방법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성격

IV. 結果 및 解釋

1. 주부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
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
련
2.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과 사회
인구학적 변수와의 관련
3.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과 주부
의 여가시간과의 관련
4. 가설적인 연구모형의 경로분
석

V. 要約 및 結論

參考文獻

=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are to figure out the amounts of leisure time of full-time homemakers and to find out leisure time factors contributed to raise the quality of life.

The major findings are the followings :

1) Full-time homemakers spend 353 minutes(5.9 hours) on the average per day on the leisure. Time for active leisure(creative activities, sports activities, spectator events, going to the party, and so on) is 70 minutes, while that for passive leisure(watching TV, listening to the radio, reading newspapers, magazines, books, chatting, relaxing, card playing) is

283 minutes(4.7 hours).

The passive leisure is the main type of spending leisure time.

2) The total leisure time of wives is significantly related to SES factors. The higher the wives' age and education, the family income, and the age of the latest child, the more the wives' total leisure time. But the more the family numbers, and the child numbers, the lower the leisure time. Active leisure time is highly related to family income, while passive leisure time is considerably family composition.

3) The wives are mostly satisfied with their lives. The wives' perceptions of the quality of life is related to wives's education, house type, and family income.

4) The wives' total leisure time is not related to the quality of life.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ctive leisure time and the quality of life, while a negative relationship is between passive leisure time and the perception of the quality of life.

5) In analysis of causal model, it appears that family income and active leisure time of wives directly affect the perceived quality of life. The more the family income and active leisure time, the higher the quality of life. It is implicated for wives to take an active attitude and to reduce, if possible, passive leisure time and to increase active leisure time.

I. 序

오늘날 生活水準의 향상은 餘暇時間의 증가를 가져오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생활은 더욱 복잡다양해져 여가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여가는 일만큼 중요한 부분으로 모든 활동에 포함됨으로써 生活樣式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천을 이루게 되었다.

餘暇의 본래적 의미는 일이나 일체의 의무적 활동으로부터의 도피라기 보다는 일을 인간에게 순응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가는 현대와 같은 인간부재의 노동이나 작업, 인간소외의 메카니즘을 극복하여 사회생활과 근로생활로부터 매몰된 인간을 제자리로 되돌려서 하루 하루의 작업이나 노동에 인간성을 부여하는 것이 장차의 역할이라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여가는 꼭 필요한 것인데 만약 여가가 이같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여가는 없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김진섭 1988 : 353) 즉 여가는 休息이나 勞動力 再生産 및 自己實現의 기능을 하여 個人生活의 質을 높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데, 생활에 필수적인 여가라 하더라도 그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한다거나 그 여가를 통

해 복지감이나 생활의 질이 향상되지 못한다면 무익한 것이다. 그런데 여가는 고용노동이나 가사노동 시간처럼 필수적인 시간이 아닌 융통적인 自由時間이기 때문에 노동으로 쉽게 합병되어 버릴 수도 있고, 레저수단의 부족이나 경제적 제한, 그리고 주부의 소극적인 태도등에 의해 변질, 축소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소멸해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확보하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생활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정학자의 연구가 요청된다.

오늘날 도시의 가족구조는 자녀수가 1~2명으로 감소하고 핵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유형으로 됨에 따라 주부의 여가시간은 과거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비취업주부는 취업주부보다 총노동 요구량이 적어 자유시간이 많고, 자녀가 학령기에 들어서면서 부터는 취업주부나 남성의 여가시간을 훨씬 능가하게 된다. 이렇게 늘어난 여가시간을 주부가 소극적으로 소일하거나 생활의 만족감을 높이도록 사용하지 못한다면 주부는 단조로운 생활에 권태를 느끼고, 주부자신 뿐 아니라 가족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主婦가 餘暇時間에 얼마만한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절대적인 여가시간의 확보와 그 내용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게 된다. 즉 주부가 여가시간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家事를 축소시킨다거나 조직화함으로써,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時間使用 방법이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勞動時間을 단축시켜 여가시간의 절대적인 양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여가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노동력 재생산 및 生活의 質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취업주부의 여가시간 사용과 그 문제점을 밝히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가시간 사용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本 研究에서는 여가시간이 비교적 많다고 간주되는 教育期子女를 둔 도시 非就業主婦를 대상으로 하여, 여가 유형별 여가시간의 량과 그 내용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要因을 살펴보고, 生活의 質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여가시간의 하위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1. 餘暇의 의미와 기능

여가는 업무를 떠나서 각자가 자유롭게 되는 시간(리트레사전 1869)일 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규의 업무로부터 떠나있을 때에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오락이나 일(Augé 사전 1930)을 의미한다. 즉 여가는 時間자체이면서 동시에 활동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여가와 대립되는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직업상의 일, 공부, 가사노동, 부업, 생리적 활동, 종교활동, 가정의례 그밖의 의무적인 일등인데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해온 바와같이 수입을 수반하는 일과 대비되는 것으로 여가를 정의하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김진섭 1988 : 24). 현대 생활에서 여가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불가결한 활동으로써 모든 여타행동과 관련되고, 일의 중단이 아닌 오히려 일을 전제로한 노동력 재생산의 시간이며 활동인 것이다.

여가는 즐거움이나 놀이 또는 유희와는 다르다. 그런데 현대의 대중매체와 상업주의적인 오락시설의 발달은 마치 여가가 이들을 통해 즐거움을 맛보는 활동인 것으로 혼동시키고 있다. 여가의 본래 의미가 인간소외의 메카니즘을 극복하고 인간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일상생활에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오히려 이러한 매체나 상업시설들은 인간성 발달에 저해요인이 될 수 있고, 수동성을 조장하고 획일화시켜 문화를 저속화시킬 우려까지 주고 있다. 또한 여가를 소극적인 시간보내기나 일로부터의 도피라고 보는 생활태도는 일상생활을 돌로 나누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같은 사고방식이라면 여가시간이 풍부하게 주어져도 전체 생활이 만족스러워진다고 말할 수 없다. 여가는 일과 삶에 대한 의욕을 부여할 때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여가의 기능은 크게 휴식, 기분전환, 자아실현의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술화, 산업화로 신체적인 노동은 경감되었으나 생활의 복잡화로 인한 심리적 피로는 가중되고 있는 현사회에서 여가는 개인이 직장이나 가정으로부터 부과된 의무로부터 벗어나 휴식하고 기분전환을 하며,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임의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총체인 것이다.

여가시간에 대한 분류나 영역에 있어서는 학자들 간의 견해가 달라, 적극적인 활동만을 여가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집내부에서의 휴식이나 TV·라디오 시청과 같은 활동들도 여가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restone과 Shelton(1988)이 여가를 적극적인(active) 여가와 소극적인(passive) 여가로 분류한 것에 근거하여 적극적인 여가에는 창조적인 활동(그림그리기, 작문, 악기연주, 노래, 연극, 공작등), 직접하는 스포츠(요가, 캠핑, 소풍, 드라이브도 포함), 영화관람 및 문화행사(음악회, 발표회, 박물관, 동물원구경)와 사교활동(연회, 여행, 기타 사회적 행사)을 포함시키고, 소극적인 여가에는 대중매체 이용(TV·라디오시청, 음악감상), 독서(책, 잡지, 신문), 한담(전화, 다른사람과 대화)와 휴식(공상, 낮잠, 앉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음)등을 포함시켰다.

2. 주부 여가시간의 배분 경향과 관련요인

1) 여가시간의 배분경향

선행연구들에서 나타난 주부의 하루 평균 여가 시간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강신주外(1968)는 여가시간의 영역을 교양, 취미, 오락, 사교, 막연한 휴식,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주부는 여가시간으로 하루에 총 6.7시간을 소비하는데 이 중 교양과 사교시간이 대체로 많고 취미시간은 적게 나타났다. 이것은 농한기의 농촌주부의 여가시간을 조사한 임명자연구(1983)와 유사한 것이다. 임정빈(1981)은 주부가 평일에 4.1시간, 휴일에 5.3시간을 여가로 소비한다고 하였다. KBS 국민생활 시간 조사(1985)는 生活時間을 생활필수시간, 노동시간, 여가시간으로 구분하여 전체 餘暇에 교제, 휴식, 여가활동(관람·감상, 스포츠, 승부놀이, 산책, 취미활동, 공작), 신문·잡지·책, 라디오·TV 등을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여기서 적극적인 여가라 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는 평일에 1.4시간, 휴일에 1.7시간을 소비하고, 소극적인 여가라 할 수 있는 기타 여가에는 평일에 8.5시간, 휴일에 8.9시간을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TV, 라디오시청 시간이 가장 많고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하는 시간은 가장 적다. 민경애(1985)는 평일에 주부는 4.0시간, 휴일에 4.8시간을 여가에 소비하는데, 이 중 신문·잡지등을 가볍게 읽는 것이 가장 많고 휴일에는 TV·라디오 시청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여가시간이 아닌 여성의 여가활용 방법을 조사한 경제기획원조사(1988) 자료에 의하면 여가활용 방법중 대중매체 시청이나 감상이 29.1%로 가장 많고 다음은 스포츠 및 여행, 잡지

및 승부놀이, 창작·취미오락 순이다.

국의 연구를 보면 Szalai(1966)은 취업여성이 하루 평균 3.6시간을, 비취업여성은 5.7시간을 여가로 소비하고, Masushima外(1982)는 주부가 평일에 7.0시간, 휴일에는 6.7시간을 여가에 소비한다고 하였다. 맞벌이 부부의 여가시간을 연구한 Nickol外(1983)은 여가시간을 사회적이고 오락적인 활동에 소비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하고 취업주부가 하루 평균 약 3.7시간을 여가로 소비한다고 하였다. Hill外(1988)는 여가시간을 모임이나 조직에 참여하는 시간(organization time), 조직과 관련되지 않은 사회적 시간(관람, 파티등), 레크레이션 시간, TV시청시간, 대화·독서·휴식·라디오등 수동적인 시간으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하루시간의 약 1/4정도를 여가로 소비하며 이 중에 TV시청 시간이 가장 많고 조직에 참여하는 시간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日本 비취업주부의 여가시간은, 伊藤(1983)에 의하면, 평일에 4.8시간, 휴일에 5.4시간을 소비하고, 松原등은 7.6시간을 소비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研究들은 몇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여가시간을 측정하는 조사도구가 時間日記表(time diary)가 아니고 설문지 문항 가운데서 대략적인 시간을 답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조사도구의 차이로 여가시간에 어느 정도의 오차가 있으리라 추측된다.

2) 여가시간과 관련요인

Firestone과 Shelton(1988)은 주부의 취업이 여가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여가를 가정 외부에서 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여가와 다른 활동의 방해를 받기 쉬운 자유시간인 소극적인 여가로

표 1. 주부의 여가시간 배분경향

								단위 : 시간	
강신주외 (1968)	임정빈(1981)		임명자외(1983)		KBS시간조사(1985)		민경애(1985)		
6.7	평일 4.1	휴일 5.3	농번기 1.4	농한기 6.7	평일 9.9	휴일 (비취업주부) 10.6	평일 4.0	휴일 4.8	
Szalai(1966)			Masushima(1982)		Nickols외(1983)		伊藤(1983)		松原·他
취업여성 3.6	비취업여성 5.7		평일 7.0	휴일 6.7	취업주부 3.7		평일 4.8	휴일 (비취업) 5.4	비취업주부 7.6

나누어 조사한 결과, 여가시간 중에서 적극적인 여가시간만이 주부의 취업노동이나 가사노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극적인 여가시간이 적극적인 여가시간처럼 구별된 시간으로 있지 않고 다른 시간에 쉽게 통합되어 버리기 때문일 것이다. 그의 연구들(Hill 1988; 稻葉ナミ 1970; 出口久子 1974)에서도 주부의 여가시간은 주부의 취업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本研究에서는 여가시간의 활용이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非就業主婦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주부의 취업변수를 제외한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주부의 여가시간과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主婦의 教育水準을 보면 강신주(1968)는 중졸이하의 주부보다는 고졸이상의 주부가 여가시간이 30분~1시간 많다고 하고, 민경애(1985)도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여가시간이 많다고 하였다. 주부의 연령은 20대일 때 여가시간이 가장 많고 30대부터 40대 초반까지 다시 감소되다가 40대 후반부터 50대가 되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박원임 1976; 강신주 1968; 김외숙 1977; 김행자 1976). 여가유형별로 볼 때 Firestone(1988)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극적인 여가시간은 감소하고, 소극적인 여가시간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영숙(1975)은 주부의 연령에 따라 여가시간은 별 차이가 없으나 여가의식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子女數가 막내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는 자녀수는 많을수록, 막내자녀연령은 어릴수록 특히 학령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가 없을 때보다 주부의 여가시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稻葉ナミ 1970; Nickols(1983; Hill 1988; Firestone(1988)). 그러나 강신주(1968)는 6세 이하의 자녀수와 주부의 여가시간과는 별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家族數도 자녀수와 유사하게 老父母나 기타 가족원수가 증가할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되나 강신주(1968)는 가족수에 따라서도 별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住居類型에 따라서는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의 여가시간이 더 많다(김행자 1970). 그리고 家計收入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증가하였다(민경애 1985). 가족의 레크레이션 참가빈도도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외숙 1977). 그러나 Nickols(1983)는 가족의 수입은 주부의 여가시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3. 生活의 質認識과 關聯要因

1) 生活의 質認識

Mitchell, Logothetti 및 Kantor는 생활의 질은 개인이 일정한 기간에 걸쳐 전반적으로 인지하는 欲求(needs)에의 만족감이라고 정의하였다. Dalkey와 Rourke는 생활의 질은 사람들이 느끼는 福祉이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나 불만족감, 행복이나 불행을 의미한다고 하였고, Gitter와 Mostofsky는 생활의 질은 개인의 일상적인 생존의 조건이며, 생활의 질의 수준은 관련된 조건을 측정하도록 고안된 척도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이기영 1984에서 재인용). 한편 James는 생활의 질은 물질적, 비물질적 성취에 대한 만족감이나 행복감이라고 하였고, Liu는 생활의 질은 인간의 안녕과 거주하는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느낌의 복합상태를 의미한다고 하였다(문숙재, 소연경 1983에서 재인용). 이와 같이 生活의 質은 욕망이나 욕구의 만족감이며 객관적인 환경조건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정한 수준의 주관성과 인식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생활의 질은 여러 하위요인들을 측정해서 심리적·물질적인 총체적 개념을 가지고 비로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객관적 지표뿐 아니라 인간의 태도나 느낌의 척도인 주관적이고 인지적인 지표가 주목을 받게 되고, 개인의 객관적 조건과 주관적인 행복감의 정도는 서로 일치한다는 연구결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음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된 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게 되었다(이기영 1984에서 재인용). 그 대표적인 연구로 Campbell팀과 Andrew팀을 들 수 있다. Campbell 등은 생활의 질척도는 관련된 사람의 감정과 분명한 연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Andrews등도 생활의 질은 단지 인간의 물리적·대인

적·사회적 환경조건과 관련된 것만은 아니고 이러한 조건들이 인간자신 또는 타인에 의해 어떻게 판단되고 평가되는가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면서, 주로 認知的 또는 主觀的 척도를 채택하였다. Campbell등은 생활의 질 模型을 객관적 환경과 환경영역별로 경험된 만족감 수준과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이 모형에 따른 연구결과 총체적인 생활의 질을 예시해 주는 중요한 영역으로 여가활동, 가정생활, 생활수준, 일, 결혼의 순으로 나타났고, 백인의 63%, 흑인의 53%가 전반적인 삶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drews등은 생활의 질이 가치차원인 평가기준과 역할차원인 영역과의 상호작용의 함수라고 제안하면서 이 두가지 차원을 결합하여 생활관심 영역을 설정하였다. 1974년에 123개의 생활관심 영역에 대한 만족감과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전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 12가지 영역, 즉 집, 여가활동, 가족과의 협조, 건강, 즐거움, 일하는 시간, 직업, 정부, 유효성, 가족, 소비자, 화폐영역이 전반적인 생활의 질의 50~60%를 설명하였으며, 따라서 이 영역들이 생활의 질인지에 기여하는 중요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미국인은 대부분 생활에 대해 비교적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또한 전반적인 생활의 질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생활관심영역은 가정생활 소득, 직업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경제적 척도가 생활의 질의 유일한 지표가 아니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였으며, 사회와의 관계나 가족관계가 복지의 중요한 요인임을 입증해 주었다(이기영 1984에서 재인용).

한편 1983년에 한국인의 삶의 질을 측정한 연구(김경동·이흥구·신도철 1983)에서 행복감, 삶의 즐거움, 생활영역별 만족감을 종합하여 측정한 결과 한국인이 인지하는 삶의 질의 평균점이 11점 척도중 4.8로 중간보다 조금 낮은 점수를 보여 한국인은 서구인보다 더 낮게 삶의 질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生活의 質認識과 關聯要因

本 研究에서는 生活의 質인식과 관련된 요인으

로, 主婦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와 가족수, 막내 자녀연령, 주거유형, 가계소득 등과 같은 사회인구학적인 요인과 주부의 餘暇時間을 들었다.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인식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으나, 앞에서 보았듯이 Campbell등과 Andrews등이 총체적인 생활의 질을 예시해 주는 중요한 영역으로 餘暇活動을 포함시키고 있고,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결혼만족도와 여가시간과의 관련을 조사한 연구들(Varga 1972; Snyder 1979; Hill 1988; Orthner 1975)이 있어 여가시간을 생활의 질인식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 간주하였다.

생활의 질인식에 영향을 주는 社會人口學的인 요인을 연구한 김경동등(1983)은 수입, 학력과 직업이 생활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연령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고 소득이 많으며 직업위치가 높은 사람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경험하였다.

여가시간과 결혼만족도를 연구한 Orthner(1975)는 배우자와 함께한 여가시간은 부부만족도와 正的인 관련이 있으며, 관련성의 강도는 상호작용 정도와 가정생활 주기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Snyder(1979)는 배우자와 함께한 여가시간의 質과 量은 전체적인 부부만족도를 높게 예측하는 요인이라 하였고, Varga(1972)는 이혼율과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여가시간 양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 否의상관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한편 Hill(1988)도 배우자와의 공동 여가시간과 결혼안정성은 正的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개인적으로도 여가는 휴식, 자아실현 및 심리적·신체적 건강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질적·양적으로 적정한 여가시간의 확보는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활의 질인식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4. 研究模型 및 研究問題

〈研究問題 1〉 비취업 主婦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은 어느 정도이며 社會人口學的 變數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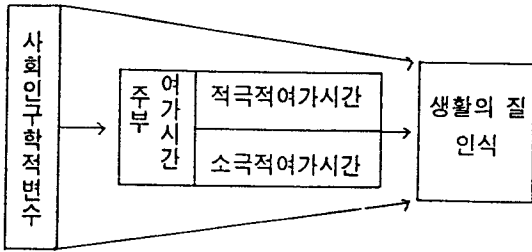


그림 1. 가설적인 연구모형.

부가 하루 일을 회상하며 기록하도록 하였다. 동시에 두가지 일을 했을 경우는 더 중요하고 우선되는 것에 표시하고 여가이외의 시간은 빈칸으로 남겨두도록 하였다. 여가시간을 여가유형별로 측정하기 위하여 여가를 적극적인 여가 4개 영역, 소극적인 여가 5개 영역으로 나누고 보기로 제시하여 해당되는 여가의 번호를 기록한 선말에 적게 하였다.

〈研究問題 2〉 비취업 주부의 生活의 質認識은 어느 정도이며 社會人口學的 變수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研究問題 3〉 비취업 주부의 生活의 質인식은 주부의 여가시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研究問題 4〉 그림 1에서 제시한 가설적인 경로모형이 주부의 여가시간과 生活의 質인식과의 인과적 관계를 잘 설명하는가?

2. 調査對象 및 資料蒐集

본 조사는 光州市에 거주하는 主婦로써 여가시간의 효과적인 사용이 보다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教育期子女를 가진 非就業主婦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것은 자녀가 학령전일 때보다 취학한 후가, 그리고 취업한 경우보다는 비취업일 때의 여가시간이 더 많고, 이 여가시간과 그 활용이 주부의 生活의 質인식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조사는 광주시의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4개 구역으로 나눈 후에 국·중·고등학교와 1개 대학교를 방문하여 표집 조건에 맞는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어머니가 작성하게 한후 2차 방문시에 회수하였다. 조사시기는 1989년 10월 16일부터 27일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포했는데 회수된 자료는 약 170부이고, 기제가 부실한 것을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것은 150부이다.

III. 研究方法 및 節次

1. 調査道具의 作成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질문지으로써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과 生活의 質에 대한 주부의 인식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및 주부의 여가시간을 조사하기 위한 평일 이틀분의 시간일기표(time diary)로 구성되었다.

主婦의 生活의 質인식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이기영(1984)의 연구에서 신뢰도계수(cronbach's α)가 0.865로 입증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生活의 質 인지와 특정 생활관심 영역별 만족감을 측정한 것으로 구성되었는데, 前者는 主婦가 생활전반에 대해 느끼는 만족감과 즐거움을 느끼는 빈도 및 행복감의 수준을 조합하여 구성한 것으로 즐거움의 빈도와 행복감의 수준은 5점 척도이고 만족감은 Campbell등의 만족-불만족 7점 척도이다. 특정 생활관심 영역별 만족감은 총 32개의 특정생활 영역에 대해 동일한 만족-불만족 7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時間日記表는 하루 24시간을 10분 간격의 선으로 구획하고 그 사이를 5분 눈금으로 표시하여 주

3. 資料의 分析方法

자료처리는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여가시간의 양과 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포, 백분율과 평균을 보았다. 또한 사회인구학적인 변수와 여가시간 및 生活의 質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가설적인 모형이 주부의 여가시간과 生活의 質인식과의 인과적 관계를 잘 설명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로분석을 적용하였다.

4. 調査對象者의 一般의 性格

주부의 연령은 40대가 42.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30대, 50대, 20대, 60대 순이다. 주부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대졸, 중졸, 국졸이하 순이다. 자녀수는 3명이 39.3%로 가장 많고 2명, 4명, 1명, 5명이상 순이다. 가족수는 5명이 36.0%로 가장 많고 4명, 6명, 7명, 3명 순이다. 막내자녀의 연령은 국민학교 연령이 39.3%로 가장 많고, 고등학교 연령과 유치원 연령이 그 다음이고 대학교연령 순이다. 가계소득은 50~70만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70~100만원, 40~50만원, 100~150만원, 15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순이다. 주거유형은 단독주택이 59.3%로 아파트보다 약간 더 많다.

IV. 結果 및 解釋

1. 主婦의 여가유형별 餘暇時間과 社會人口學的 變數와의 關係

1) 주부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

주부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의 배분경향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비취업주부는 하루평균 여가시간에 353분(5.9시간)을 소비한다. 이것은 Szalai(1966)과 伊藤(1983)의 비취업주부의 것과 비슷한 수치이며, KBS시간조사(1985)보다는 4시간 정도 더 적고, 전체 주부를 대상으로한 임정빈(1981)과 민경애(1985)의 것보다는 1.8시간 더 적은 것이다.

여가유형별로 보면 적극적 여가시간에 하루평균 70분(1.2시간), 소극적 여가시간에 283분(4.7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적극적 여가시간에는 연회·여행시간이 27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스포츠·에어로빅시간(21분), 창작·공예(16분), 그리고 관람·구경(6분)시간 순이다. 소극적 여가시간은 적극적 여가시간의 약 4배에 해당하는데 TV·라디

오시청 시간이 136분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신문·잡지·책을 읽는 시간(53분), 전화나 친지 이웃들과의 한담(43분), 아무 생각없이 쉬는 휴식 시간(40분), 화투놀이등(11분) 순이다.

이상과 같이 비취업주부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을 볼 때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가정안에서의 소극적인 여가로 소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주부의 여가시간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주부의 여가시간과의 관련을 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주부의 총여가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주부의 총여가시간은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준다.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증가하며, 자녀수와 가족수가 많을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감소한다. 또한 막내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거유형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일 때, 그리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각 변수와 여가유형별 여가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먼저 적극적 여가시간은 자녀수와 가족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유의한 관련을 가지며 총여가시간에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적극적 여가시간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적극적 여가시간의 하위 영역별로 보면 창작·공예시간은 주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며,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고, 자녀수와 가족수가 많을수록 감소하며 주거유형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일 때 여가시간의 양이 더 많다. 스포츠·에어로빅시간은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많으며, 역시 자녀수와 가족수가 많을수록 감소하고 막내자녀 연령과 가계소득은

표 2. 주부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

단위: 분(시간) N=150

총여가시간	적극적 여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					
	창작·공예	스포츠 에어로빅	관람·구경	연회·여행	TV· 라디오	신문·잡지 ·책	한담	휴식	화투놀이등	
353(5.9)	16	21	6	27	136	53	43	40	11	
	계 70(1.2)				283(4.7)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주부의 여가시간과의 상관관계

주부연령 주부교육수준 자녀수 가족수 막내연령 주거유형 가계소득	총여가시간		적극적 여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	
	창작·공예	스포츠·에어로빅	판람·구경	연회·여행	적극적 여가시간	TV·라디오	신문잡지책	한담	휴식	화투놀이	소극적 여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	소극적 여가시간
	.1575**	-.1628**	-.1388**	.2676****	.1348**	.1344***	-.1051	-.0071	.0044	.1768**	.0987	
	.1461**	.1823**	-.0739	.1354**	.2340***	.0605	.1357**	-.0123	-.0710	-.2159***	.0084	
	-.1839**	-.1753**	-.1101*	.1121*	-.1018	-.0757	-.1319*	-.0892	-.0899	-.0150	-.1576***	
	-.1535**	-.1205*	-.0667	.0618	-.0935	-.0758	-.0633	-.0850	-.0864	.0234	-.1250*	
	.2169***	-.0984	-.1492*	.2979****	.1825**	.1554**	.0778	.0629	.0149	.1523**	.1384**	
	.2515****	.1861**	.0700	.1346**	.2667****	.1349**	.1542**	.0524	-.0267	-.0034	.1215*	
	.2347***	.0895	-.0937	.2913****	.3628****	-.0194	-.0291	.1719**	-.0822	.0714	.0320	

*p<0.1 **p<0.05 ***p<0.01 ****p<0.001
*시간연구에서는 유의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나 유의수준을 p<0.1로 보고는 연구들이 많다.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주거유형은 아파트일 때가 단독주택일 때보다 더 시간소비양이 많다. 관람·구경시간은 주부의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며, 자녀수는 많을수록 그리고 막내자녀연령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연회·여행시간은 주부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수는 많을수록, 막내자녀연령과 가계소득은 높을수록 증가하며 아파트에 거주할 때가 단독주택일 때 보다 더 많다. 소극적인 여가시간은 적극적인 여가시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데 자녀수, 가족수, 막내연령, 주거유형변수와만 유의한 관련을 가진다. 하위 영역별로 보면 우선 TV·라디오시청 시간은 주부의 연령과 막내자녀 연령과만 유의한 관련을 가진다. 주부의 연령과 막내자녀연령이 증가할수록 TV·라디오시청 시간의 소비가 많다. 신문·잡지·책을 읽는 시간은 주부의 교육수준과 자녀수, 주거유형과 유의한 관련을 가지는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자녀수는 많을수록 감소하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단독주택의 경우 보다 이 시간의 소비가 많다. 이웃친지들과 전화나 이야기를 한담하는 시간은 가계소득 과만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데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아무 생각없이 쉬는 휴식시간은 모든 변수와 유의한 관련을 보여주지 않았다. 화투놀이등을 하는 시간은 주부의 연령과 막내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많고,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以上과 같은 여가유형별 여가시간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련을 볼 때 적극적인 여가시간이 소극적인 여가시간보다 많은 변수들과 유의하고 강한 관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Firestone등(1988)이 지적했듯이 소극적인 여가시간은 적극적인 여가시간처럼 뚜렷한 구분이 없고 다른 활동들에 의해 쉽게 합병되거나 소멸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2. 主婦의 生活의 質認識과 社會人口學的 變數와의 關係

1) 生活의 質 인식 경향

광주시 비취업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인식 경

향은 서울시 주부를 대상으로한 이기영(1984)의 연구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4가지 측정치중에 즐거움의 빈도척도를 제외하고는 모든 측정치의 평균점이 중간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측정치의 급간을 조정해서 조합한 전반적인 생활의 질인식 지표 역시 평균점이 4.623으로 중간점에 비해 높다. 따라서 주부들은 전반적인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과 사회인구학적 변수

주부연령, 주부교육, 자녀수, 가족수, 막내자녀연령, 주거유형 및 가계소득과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간에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본 분석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주부의 교육수준, 주거유형 및 가계소득만이 생활의 질인식과 유의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큰 관련을 가진 변수는 가계소득($r=.3978$)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인식정도도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은 주부의 교육수준($r=.2229$)인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역시 생

활의 질인식 정도가 높고, 주거유형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단독주택보다 질인식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이기영(1984), 김경동 등(1983)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3.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과 여가시간

표 6에 보는 바와 같이 주부의 총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인식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이것은 여가시간의 하위영역인 적극적인 여가시간과 소극적인 여가시간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여가유형별로 보면 적극적인 여가시간이 소극적인 여가시간보다 생활의 질인식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활의 질과 긍정적인 관련을 갖는다. 즉 적극적인 여가시간이 증가할수록 생활의 질인식도는 높아진다. 하위 영역을 보면 스포츠·에어로빅시간과 연회·여행시간이 유의한 관련을 가지는데 이 시간의 소비가 많을수록 생활의 질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소극적인 시간은 생활의 질과 부정적인 관련을 가져, 시간소비가 증가할수록 생활의 질의

표 4.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 경향

	행복감 (5점척도)	즐거움 (5점척도)	만족감 ¹⁾ (7점척도)	만족감 ²⁾ (7점척도)	전반적인 생활 ³⁾ 의 질인식(7점척도)
평균	3.680	3.053	4.368	4.700	4.623
표준편차	0.726	0.988	0.658	0.906	1.004

- 1) 자아준거척도에 의한 만족-불만족의 7점척도
- 2) 얼굴지표에 의한 7점척도
- 3) 4가지 측정치를 조합한 전반적인 생활의 질의 7점척도

표 5. 생활의 질인식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상관관계

N=150

생활의 질인식	주부연령	주부교육	자녀수	가족수	막내연령	주거유형	가계소득
		.0192	.2229***	-.0559	-.1006	-.0739	.1849**

n<0.05 *p<0.01 ****p<0.001

표 6. 생활의 질인식과 주부의 여가시간과의 상관관계

N=150

총여가시간	적극적여가시간	창작·공예	스포츠·에어로빅	관람·구경	연회·여행
.0465	.1993**	.0420	.1760**	.0451	.1143*
	-.1153*	-.1307*	.0128	.1200*	-.0910
			한담	휴식	화투놀이
					-.1163*

*p<0.1 **p<0.05

인식정도는 낮아진다. 유의한 하위영역은 TV·라디오 시청 시간과 화투놀이 시간이다. TV·라디오 시청시간과 화투놀이 시간은 증가할수록 생활의 질인식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담시간은 생활의 질과 약한 正의관련을 가져 전화나 이웃사람들과 한가로이 잡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주부의 생활의 질 인식도는 높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비취업주부들에게는 생활의 질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여가는 아직 보급되지 않은 실정이고, 대개 일상생활중 여가를 소극적으로 무료하게 보내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소극적인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주부의 생활의 질 인식도는 낮아지기 때문에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보내는 여가시간을 줄이고 적극적인 여가시간은 보다 늘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4. 假說的인 研究模型의 經路分析

소극적, 적극적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인식 각각에 대하여 중회귀분석을 하여 유의하게 나타난 변수들을 가설적 연구모형에 포함하였다. 소극적 여가시간에는 자녀수, 적극적 여가시간에는 주부연령, 주거유형과 가계소득이, 생활의 질인식에는 가계소득과 적극적 여가시간이 유의하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도 유의한 변수이긴 하였으나 자녀수와와의 상관이 높아($r =$

88) 제외시켰다.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은 外生變數로 하고 주부의 소극적, 적극적 여가시간은 内生變數로 하여 경로모형을 구성한 결과 이 모형은 생활의 질인식을 약 21.6% 설명해주었다. 중회귀 분석을 하여 얻어진 표준화된 회귀계수로 경로계수를 정하고 이로써 구성된 경로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이 경로모형을 통해 변수간의 因果的관계의 파악이 가능하다.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은 가계소득과 주부의 적극적 여가시간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은 생활의 질인식에 대해 독립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력이 보다 큰 변수로($p = .350$) 생활의 질인식과는 正의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소득이 높을수록 주부가 생활전반에 대해 가지는 질인식도는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변수는 주부의 적극적 여가시간으로($p = .181$) 주부가 적극적으로 보내는 여가시간이 많을수록 생활의 질인식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주부의 연령, 주거유형과 또한 가계소득도 적극적 여가시간을 통해 생활의 질인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부의 연령은 높을수록 주부는 적극적 여가시간을 보다 많이 가지며, 주거유형은 아파트인 경우에 동시에 가계소득은 높을수록 적극적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생활에 대한 인식도도 높게 나타났다. 즉 소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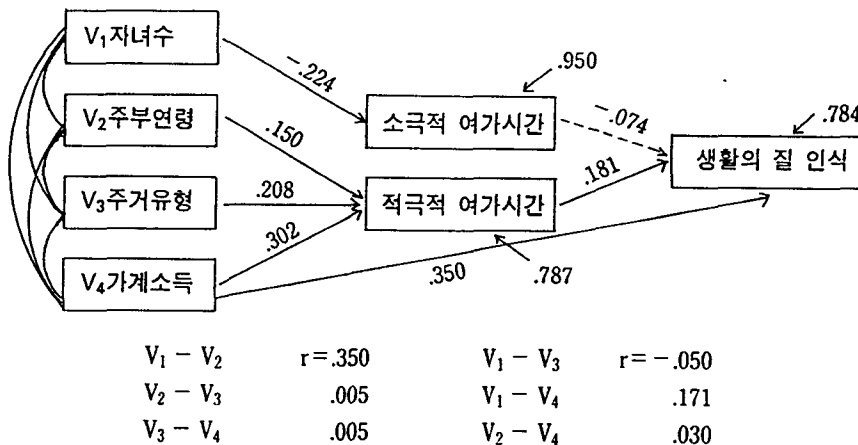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생활의 질에 직접적으로 또 주부의 적극적 여가시간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자녀수는 주부의 소극적 여가시간과는 음의관계($p = -.224$)를 가진다.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주부가 소극적으로 보내는 여가시간은 감소하며 유의하지는 않으나 소극적 여가시간이 적을수록 생활의 질인식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74$).

V. 要約 및 結論

本 研究에서는 여가시간이 비교적 많다고 간주되는 교육기자녀를 둔 비취업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주부들의 여가유형별 여가시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또한 生活의 質을 향상하는데 기여하는 여가시간의 하위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비취업주부는 하루평균 여가시간에 353분(5.9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여가유형별로 보면 적극적 여가시간은 70분인데 비하여 소극적 여가시간은 283분(4.7시간)으로 비취업주부는 집외부에서의 적극적 여가(창작·공예, 스포츠, 관람, 연회)보다는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가정안에서의 소극적 여가(TV·라디오시청, 신문·잡지·책, 한담, 휴식, 화투놀이등)로 소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변수들과 주부의 여가시간과의 관계를 보면 주부의 총여가시간은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관련을 나타내었다. 총여가시간은 주부의 연령, 교육수준, 막내자녀 연령과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였고, 자녀수와 가족수는 많을수록 주부의 여가시간은 감소하였으며, 주거유형은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인 경우에 시간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유형별로 보면 우선 적극적 여가시간은 자녀수와 가족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는 반면에 소극적 여가시간은 자녀수, 가족수, 막내연령 그리고 주거유형과 약한 관련을 가진다. 특히 적극적 여가시간과 가장 강

한 관련을 가지는 변수는 가계소득($r = .363$)이고, 소극적 여가시간은 자녀수($r = -.158$)이다. 즉 소극적 여가시간은 소득보다는 가족구성에 따라 주부의 여가시간의 양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만, 적극적 여가시간은 무엇보다도 소득과의 관련이 커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 광주시 비취업주부가 인식한 생활의 질인식 경향은 서울시 주부의 결과(이기영 1984)와 유사한데 전반적인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과 사회인구학적 변수와의 관련을 보면 주부교육, 주거유형과 가계소득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생활의 질인식과 가장 큰 관련을 가지는 변수는 가계소득($r = .398$)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인식도는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수준 역시 높을수록, 주거유형은 아파트인 경우에 높다. 즉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인식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4) 주부의 여가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를 보면 총여가시간과는 의미있는 관련을 보이지 않고 주부의 적극적 여가시간이 소극적 여가시간보다 많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여가시간은 증가할수록 주부가 인식하는 생활의 질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스포츠·에어로빅과 연회·여행시간이 많을수록 생활의 질 인식도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소극적 여가시간은 증가할수록 생활의 질 인식도는 하락하였다. 소극적 여가중에서도 TV·라디오 시청이나 화투놀이등의 시간을 많이 가질수록 생활의 질 인식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부의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능한 소극적으로 강요된 여가를 무료로 소일하는 여가시간은 줄이고 적극적인 자발적 여가시간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5) 가설적인 경로모형으로 변수들간의 인과적 관계를 파악한 결과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은 가계소득과 주부의 적극적 여가시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생활의 질인식도는 높고, 적극적 여가시간 양이 많을수록 생활의 질인식도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주부의 연령과 주거유형 및 가계소득은 적극적 여가시간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주부의 연령은 높을수록 주거유형은 아파트인 경우에 또한 가계소득은 높을수록 주부의 생활의 질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의하지는 않지만 소극적 여가시간은 적을수록 생활의 질인식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대부분의 비취업 주부는 생활의 질인식이 긍정적 영향을 주는 적극적 여가보다는 소극적 여가로 여가시간을 소일하고 있고, 여가에 대한 이같은 소극적 태도는 생활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의 질에 대한 낮은 인식은 주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가족 전체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생활의 질인식을 낮게하는 소극적인 여가시간을 줄이고 적극적 여가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려면, 우선은 주부 자신이 자신과 가족의 복지를 위해서 여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생활태도를 가지고 적극적인 여가시간의 절대량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주부가 적극적인 여가를 가지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그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주부가 가정밖에서의 적극적인 여가를 쉽게 그리고 충분히 가질수 있도록 하는 사회제도적인 보조와 지역 사회시설을 마련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취업주부도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과 여가시간뿐 아니라 생활시간의 할당에 따른 생활의 질인식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 1) 강신주·서영숙·최보가 : 생활시간관리 실태조사. 대한가정학회지 6 : 133-141, 1968
- 2) 경제개발원 조사통계국 : 한국인의 사회지표, 1988
- 3) 김경동·이흥구·신도철 : 한국인의 가치의식과 삶의 질. 이만갑교수 회갑기념논총,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서울 : 461-499, 1983
- 4) 김외숙 : 가족레크레이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 5) 김진섭 : 현대여가론. 형설출판사, 1989
- 6) 김행자 : 주부의 여가시간과 가정의 부수입에 관한 연구. 숙명여대 석사학위논문, 1970
- 7) 민경애·윤복자 : 주부의 여가시간과 여가활동의 실태와 지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 (1) : 15-22, 1985
- 8) 박원임 : 도시주부의 여가시간에 관한 조사연구. 고려대학교 사대논집 1, 1976
- 9) 안영희 : 주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논문집 16 : 219-226, 1977
- 10) 안동선·이정우 : 도시주부의 여가유형이 결혼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 55-65, 1983
- 11) 임평자·박정희·김민숙 : 농가주부 및 경영주의 생활시간 분석 보고서. 생활개선자료 제1호, 농촌진흥청, 1984
- 12) 임정빈 : 도시주부의 생활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2) : 73-87, 1981
- 13) 이기영 : 주부가 인지한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3) : 111-127, 1984
- 14) 지영숙 : 한국도시 주민의 여가생활 실태와 의식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 논문집 21, 1975
- 15) 한국방송공사 : 국민생활시간조사, 1983, 1985
- 16) 홍두승 : 사회조사분석. 다산출판사, 1987
- 17) Andrews FM & Withey SB : *Developing Measures of Perceived Life Quality*, New York & London : Plenum Press, 1976
- 18) Campbell A, Converse PE & Rodgers WL :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 Evaluation and Satisfaction*.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1976
- 19) Firestone J & Shelton BA : *An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Woman's Work on Available Leisure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 478-495, 1988
- 20) Hill MS : *Marital Stability and Spouses' Shared Time*. *Journal of Family Issues* 9(4) : 427-451, 1988

- 21) Matsushima C & Suzuki Y: *Household Use of Time-Transitions from 1960 to 1980-International Research Group on Time Budgets and Activities. 10th World Congress of Sociology. August 16-21, Mexico, 1982*
- 22) Nickols SY & Mohamed Abdel-Ghany: *Leisure Time of Husbands and Wives.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12(2) : 189-198, 1983*
- 23) Orthner DK: *Leisure Activity Patter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Marital Caree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Feb.) : 91-102, 1975*
- 24) Snyder DK: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Nov.) : 813-823, 1979*
- 25) 稻葉ナミ, 桑田百代: 맞벌이부부와 일반부부의 생활시간 구조에 대하여-자녀의 유무와 막내의 연령에 의한 영향에 대하여. 일본가정학잡지 21(3) : 207-213, 1970
- 26) 松原治郎·高橋均·佐藤カヅコ: 맞벌이 부부의 의식과 실태. 동경도민생국(湯澤雅彦 편저: 가정경영실험조사법. 産業圖書 p69, 1974)
- 27) 伊藤: 맞벌이 부부의 활동과 시간할당의 관계. 일본가정학잡지 34(7) : , 1983
- 28) 出口久子·武藤美子·石垣志津子·森川きく: 농가의 건강과 가정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노동시간과 여가의 관계. 일본가정학잡지 25(1) : 79-84, 1974